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13호 현대불교
2009년 1월 7일(음력 12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1

자기 내면에다 몽땅 놓으세요! 몽땅 맡기고 사세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

문 인터넷을 통해 큰스님 법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저의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다 회사에서도 언제 잡힐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까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사람이 좀 너그럽게 사세요. 모든 게 다 네 거 내 거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는 거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도 무에서 유로 나오는 거지, 유에서 무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없어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해 낸다 이런 뜻이죠. 이런 공부는 정말이지 하기 쉬우면서도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예요. 하다가 또 '이거 안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뭐.' 하고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는 것도 네가 죽게 한다면 죽는 거고, 네가 형성 시켰으니까 살리는 것도 너고 죽이는 것도 너니까 너 알아서 해!' 그러면 책임이 있죠.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책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이름만 부르던 되겠습니까?

그것을 공부하는 계기로 삼아서 자기한테 물어 보세요. 하나하나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앞에 딱 친 거는 뭐든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또 아픈 사람은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금방 보살이 응신으로 화해요. 응해 주는 화신으로 화해요. 화해서 응해 준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름이 보살이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법당에 부처님 한 분을 모셔 놓고 양 옆에 문수보살 모셔 놓고 보현보살 모셔 놔요. 세 분. 이렇게 모셔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한 분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부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문수와 법신이에요. 그리고 움직여줬다 하면 보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제각기 한 분이 다 부처 문수 보현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라.' 이러는 거는 자삼보에 귀의하라. 자삼보에, 각자. 부처님의 이름을 따라다니거나 부처님의 형상을 따라다니던 그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백년 천년 만년이 가도 그 부처님의 진의를 모르고 자기의 진의를 모를 거예요. 애들이 좀 피딱하고 안됐다 하더라도 개한

데 관해라, 뭐 어쩌라 이러면 오히려 더 안 듣게 되죠. 여기다 놓고 '그렇지 않게 너만이 할 수 있어. 주인공은 돌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 주인공이 듣는단 말이에요. 알아 들었어?

그렇게 해서 차차로 착해지고 성숙해지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뒤바뀌죠. 사람을 고정되게 너는 요랄다 하고 못박질 마세요. 할 수도 있고 잘하던 사람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있는 것도 아니예요. 돈이 없는 사람도 항상 없는 게 아니고요. 항상 바뀌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우리가 가난해 보지 않는다면 너그러워질 수가 없죠. 가난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진의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다리 아픈 것도 아픈가 보다 그렇게 하지 진실하게 그렇게 마음이 돌아가지 않아요. 저 마음이 얼마나 귀찮고 괴로울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아파 보지 않아서도 그렇고 살아 보지 않아서도 그렇고 모두 해 보지 않던 거는 우리가 다 그렇죠.

저는요, 돌 하나를 봐도 스승으로 여기지 않았던 예가 없어요. 그리고 물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응, 이게 평등이구나. 어떤 파도가 치고 어떤 풍을, 구름들이 들어와도 바다는 바다로구나. 그런데 바람이 불어 파도를 일으키면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 게 물이 바다가 아닐 수는 없거든요. 파도를 쳐도 바다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으로서 한번 실천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그 진의를 하나하나 이렇게 체험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많이 체험을 해서 아주 슬기롭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안되는 원인이, 중학교 다녔으니까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라 이런 뜻인데, 이게 되는 것만 진리가 아니라 안되는 것도 진리다 이겁니다. 안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되는 걸 '안되는 것도 너가 하는 거니까 알아서 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리고 그냥 태평하게, 안되면 '안되는 것도 너가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 하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니깐 고마워.' 이라고 하면 그냥 알았으니깐 단박 돌아가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오래 갑니다. 빨리 알아채면 그냥 빨리 확 돌아가 버리는 데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벗어나야 우리를 마음대로 굴릴



그림 · 최주현

수가 있고 우리 생명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조복을 받아야 내 마음대로 어디가 아프면 '아프게 해서 되니? 안되지!' 이러면 금방 그냥 돌아 가고 이러죠. 그뿐이 아니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

을 때 '저거를 어떡하면 좋지?' 할 때 이 안의 의식들이요, 얼른 쉽게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다 나가서 해결하듯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까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하소연을 다 들어 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도의 길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더딘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못사는 거 억울하다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잘못돼도 '판 사 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런 생각 마시고 그냥 그저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그냥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 거 명심하세요.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으로서 개척을 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게 고인가요?

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게 고인가요? 한 동안은 두통이 심해서 스님 말씀 듣고 관하였더니 통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서부터는 또 온 몸 이곳 저곳에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병원에서는 뚜렷한 병명 없이 신경성이라고만 하니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병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답 예전에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지만 절에 사람이 없으면 부처가 없으니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그 마음과 마음을 전 달고 돌이 아니게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병도 낫 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병이란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 통이에는 이 부분 부분을 다 맡아서 하는 공장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오장 육부에 전부 공장장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모든 걸, 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는 다 주인공에다가 맡겨 놔줄 때 그 공장장들은 자기한테도 열쇠를 맡기거나 자기네들이 도둑 안 맞고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맡긴단 말입니다. 다 맡겨 놓으니까 술술 잘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 이게 이렇게 병이 심하니까 오래 가겠지. 이게 한 달이 걸리겠지, 또는 두 달이 걸리겠지. 많이 좀 좋아지면 차차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왜 거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갑니까? '아, 그냥 나을 거다.' 이렇게 믿어 버린다면 시간도 정망할 것도 없고 날짜도 정망할 것도 없고 달수도 정망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또한 여러분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

22면으로 계속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나의 체질을 알아야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 먹어야 내 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가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든다면 체질을 알고 먹는 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간 얼골생김새, 목소리 체형, 살갗을 만져보고 연구 노력하여 스스로 터득하여 얻어낸 좋은 분을 만나서 체질을 알고 병을 고쳐주세요. 체질을 알아야 맞는 처방으로 병도 고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연구 · 노력하여 터득한 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행운이 열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무료로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특례를 드립니다

연락처 011-9373-3778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용법과 전통을 자랑하는 사) 부산산악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대종회에 기여하고자 영남불교예술대학을 설립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화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중급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법 (대령, 관옥, 시식등)	수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전문반	짓소리, 전통예능등 통합반	목	2시~5시	20명(1년)
작법무반	바라, 나비, 사찰학춤	금	2시~4시	30명(6개월)
국악기반	태평소, 단소, 대금 (영산화상, 청성곡등)	금	4시~6시	30명(6개월)

◆개강일: 불기 2553년 기축년 양력 2월 3일 오후 2시

◆교육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운사내 영남불교예술대학

◆접수 연락처(교학처): 051)327-5095 / 010-2314-1279

◆기숙사방 운영(선착순 우선): 단기 수련 후 심사 거쳐 이수증 발급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嶺南佛敎藝術大學
Young Nam Buddhism College of Arts
※ 각종 사찰행사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 이수자님 전국에 배정되어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마음의 힘이 모이면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이 됩니다. (보시금중 일부는 생명 나눔 실천 기금 및 장학기금에 쓰입니다.)
010-2314-1279, 051)327-5095

발로 해

(특수기능성 두안족열 양말)



발로 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 참선, 명상, 정지순례, 등산, 오전, 고시수험생)
-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 독소, 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 보들보들, 보송보송 100%보장!

※KBS (성로봉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만오후) 출연
SBS (0.2평의 기적) 출연, KBS (불교방송 (무명술 뽐이고) 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등 기사 다수

주문처: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www.법왕장사.kr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年支)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 주역(周易)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다.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흉명(凶名)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大邱에서 많은 후학(後學)들에게 작명법(作名法)을 강의하고 있으며, 본서(本書)가 참다운 작명(作名)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 ◆아래 계자로 입금하시면 송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 382쪽 (정가: 30,000원)
- ◆著者: 孫中山 (75세) 韓國易學學會 會長
- ◆계좌번호: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 ◆주문전화: (053)324-2468 / 326-4585